연중 제 17주일 화답송

주님, 당신 손을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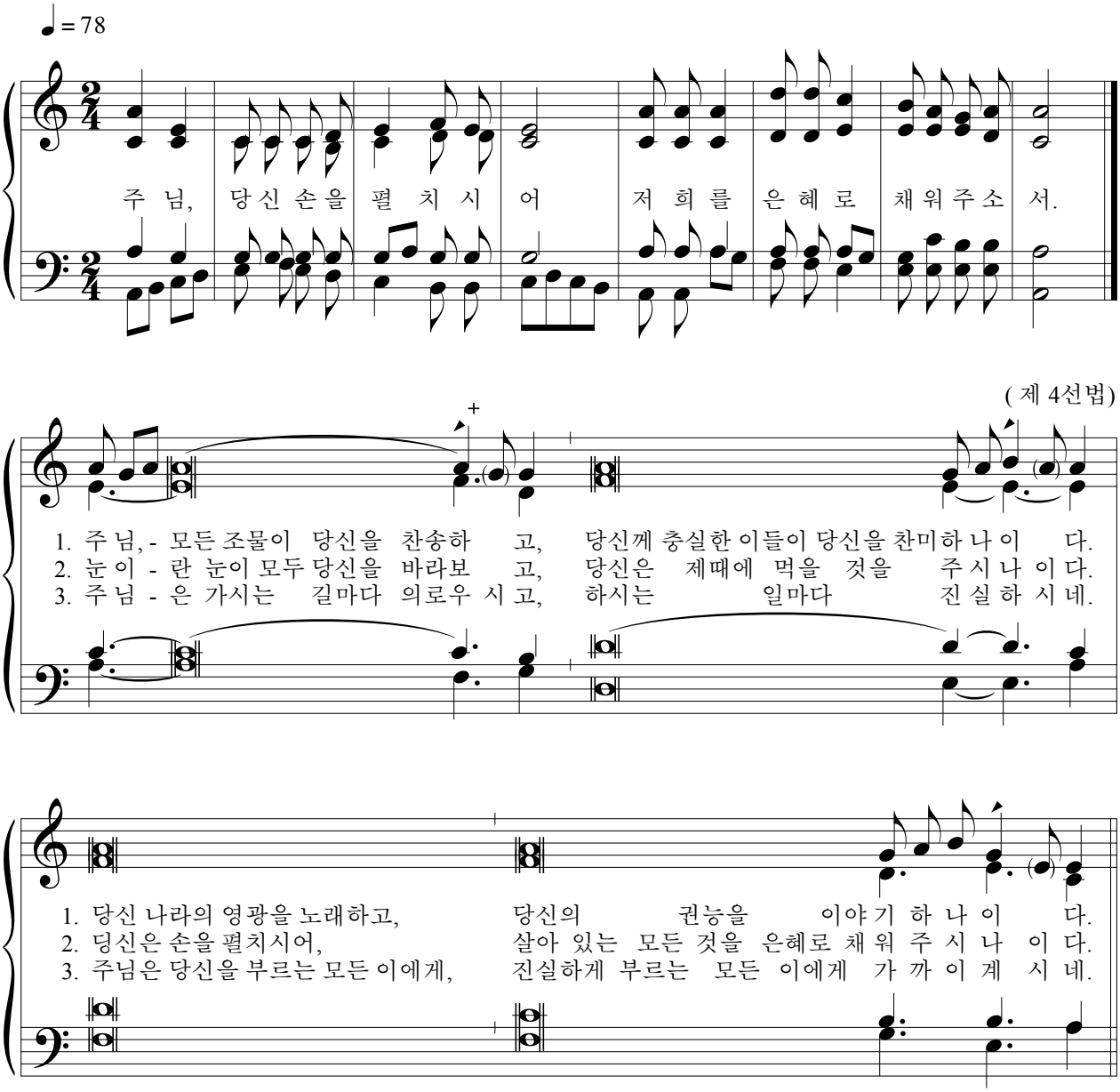
백 남 용

